

작품설명서

작품명	더 그린 콘듀잇
작품의도	본 작품은 도시를 단절시켰던 안산선 지하화 부지와 과거 공업도시의 상징인 '파이프'를 결합하여,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 시킵니다. 차가운 산업 유산의 뼈대 위에 사람과 자연, AI 기술이 유기적으로 흐르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인 '에코튜브'와 에코튜브에서 이어지는 랜드마크 '상상 빛 매듭'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지상의 넓은 숲이 다문화 시민을 포용하는 기반이 되고 스마트팜을 투명적으로 조성하여 안산시의 AI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미래형 공공 인프라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본 설계는 과거 산업 시대의 궤적 위에, 안산시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숲의 도시' 비전을 첨단 기술로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품설명	에코튜브는 파이프의 원통형 이미지에서 모티브를 얻어 설계한 공중 보행로로 수목이 식재된 생태적 통로임을 강조하는 입체적 길입니다. 이 길로 시민들은 문화광장에서 시청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에코튜브에서는 플로팅 가든을 접할 수 있습니다. 지상과 단절된 공중의 공간에서 시민들이 산책하며 식물들을 감상할 수 있게 합니다. 에코튜브를 걷다 보면 나오는 상상 빛 매듭은 여러 갈래의 에코튜브가 묶이는 곳으로, 미디어 파사드를 사용하여 연말에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안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구조물입니다. 곡선적이고 입체적인 형태로 도시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타워 팜은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게 될 AI를 활용한 구조물입니다. 안산은 최고의 다문화 도시입니다. 일반적인 상투나 토마토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수, 딜 등다문화의 이주민들을 위한 특수 식재료를 AI가 재배합니다. 이렇게 수확한 식재료들은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컬처플랜트는 공장이라는 산업적 어휘를 문화 생산 기지로 뒤집은 이름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지식(도서관), 예술(야외극장), 신체적 에너지(운동)가 생산되는 역동적인 구역입니다. 캔버스 가든은 고정된 조경이 아니라 매년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이 그려지는 거대한 도화지입니다. 계절마다, 작가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변화무쌍한 문화 전시 공간입니다. 이는 안산시가 바라는 문화적 도시에 가까워지는 공원입니다.

※ 기재공간 부족시 별지사용 가능